

확증적 요인분석 과정의 체크 포인트

□ 집중타당성에서 주의사항

- AVE는 0.5이상, CR은 0.7 이상을 만족하는 수준
- 특정 개념 또는 요인을 지지하는 측정변수는 0.5이상의 요인적재치를 유지
-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
 -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도해서, 연구에서 가정한 요인구조와 일치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.
 - 요인적재치가 0.5이상, 공통성(Communality: 각 측정변수가 여러 요인에 설명되는 정도: 요인적재치의 제곱합)이 0.4 이상

□ 판별타당성에서 주의사항

- $AVE > (\text{요인간의 상관관계})^2$ 이면, 판별타당성이 확보
- AVE가 높고, 요인간의 상관이 낮으면, 판별타당성이 확보된다는 의미
- 교란변수를 확인하는 방법
 - 한 측정변수가 여러 요인에 설명력을 가질 때, 판별타당성에 위협
 - 인자의 복잡성(factorial complexity: 한 측정변수가 여러 요인에 걸쳐서 설명력을 가지는 경우)을 가지는 변수가 없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.
 - AMOS상에서는 확인이 어렵다.
 -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체크가 가능함.
 - LISREL상에서, MI지수를 보고 확인 가능함.

□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중요한 이유.

-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, 향후 구조모형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기초가 된다.
-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, 다중공선성(multi-collinearity) 또는 Heywood 현상(표준화 계수가 1인 경우)을 보인다.